

농어촌민박 한곳 문 열면 두곳 닫았다

제주 최근 4년 사이 1000여곳 창업·1800여곳 폐업 신고제로 진입문턱 낮아 숙박시설 과잉공급 초래
우후죽순 생겨나며 업체간 경쟁으로 경영난 심화

제주도내 숙박시설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도내 관광 숙박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후죽순 새로 늘어나는 농어촌민박이 숙박시설의 증가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업체간 경쟁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며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모두 6737곳이며 객실 수는 7만8376실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6199곳·7만7577실)과 비교하면 숙박시설은 538곳(8.7%), 객실 수는 799실(1.0%)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2월 말 기준(6779곳·7만8206실)으로 숙박시설은 42곳, 객실 수는 170실이 더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32곳·7만4064실)과 비교하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숙박시설은 1147곳(20.4%), 객실 수는 4142실(5.6%) 늘었다.

도내 숙박시설의 이같은 증가세는 농어촌민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5350곳으로, 도내 전체 숙박시설의 7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내 농어촌민박 객실 수는 1만3960실로 전체의 16.8%에 달했으며 관광숙박업(3만3320실·42.6%), 일반숙박업(2만1496실·29.7%) 다음으로 많다.

농어촌민박은 2019년 4273곳에서 2020년 4484곳, 2021년 4789곳, 2022년 5309곳, 올해 2월 말 기준 5350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농어촌 민박이 2020년 211곳, 2021년 305곳, 2022년 502곳, 올해 41곳 등 해마다 이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제주 여행 수요가 단체 보다는 소규모·개별 관광객 위주로 늘어난데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돼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숙박시설 과잉 현상 속에 농어촌민박이 계속 늘어나면서 휴·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735곳, 2020년 651곳, 2021년 25곳, 2022년 357곳, 올해 2월 기준 88곳 등 최근 4년여 사이 1800여곳이 문을 닫았다. 박소정기자



김수환 신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이 지난 16일 취임 첫날 현장 행보로 제주시 동문시장 등을 방문, 소방시설 관리실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도민 안전이 소방임무 최우선”

김수환 제주소방본부장 취임 첫날 현장 행보

제17대 제주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수환 소방준감이 지난 16일 별도 취임식 없이 현장 방문으로 공식업무에 나섰다.

김수환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화제예방강화지구인 동문시장과 중앙지하상가의 관리 실태를 살피며 제주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난대응태세 확립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주요 소방시설들의 관리상태를 살펴보고 상인회와의 면담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점

검했다. 김수환 본부장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아시아 최초 4차 공인에 빛나는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안전을 책임지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도민안전 최우선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든든한 제주소방 이미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소방사 공채로 소방에 입문, 소방청 주요 보직을 역임한 김수환 본부장은 지난 16일 소방준감 승진과 함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에 임명됐다. 김도영기자

“최근 일교차 10℃ 이상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제주지역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7~9℃, 낮 최고기온은 16~17℃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기상청은 곳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0℃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환절기에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4℃, 낮 최고기온은 18~19℃로 예상된다. 이상민기자



봄이 왔어요... 함께 즐기세요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한 문화도시 서귀포와 함께하는 '제12회 서귀포봄맞이축제'가 18일 서귀포시 이종섭공원에서 열렸다. 강희만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불법숙박 ‘요주의’

제주시-유관기관 합동단속 12곳 적발... 8건 형사고발 조치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영업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

여 불법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했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

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 총 12곳으로 제주시는 이중 8건은 형사고발하고 4건은 행정지도했다.

적발된 12곳의 업소들은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소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을 지급하는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파도 택배?... 이젠 ‘드론’이 간다!

도,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맞춤형 물류배송

제주지역에 첨단 드론·항공 기반시설 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최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국제공항 관제권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운용 및 도서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배송서비스를 실증한다.

도서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는 운진항-가파도를 대상으로 고중량 택배 정기배송 및 긴급 택배 직배송, 가파도 특산물 역배송 등 최일선에서 진행되는 실증으로 드론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

로 한다. 고중량 택배용 드론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인증을 마쳤고 안전 강화를 위해 낙하산 장착 등이 이뤄진다.

또한 ‘드론 배송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등록으로 드론택배 자격을 획득하고 물류, 항공교통, 항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드론 물류체계 상용화 방안을 연구해 본격적인 드론 물류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녀 고통화로 인한 현안 해결을 위해 고중량 택배드론으로 해녀 채취물(망사리) 드론 운송 지원 실증도 함께 추진한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육지와 제주의 배송비는 똑같이!

‘제주도’로 주문할 때는
추가배송비 부담없는 **해남미소**에서

해남군청 직영 땅끝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www.hnmiso.com

080-859-1100 무료

NAVER 해남미소

네이버에 해남미소를 검색하세요

땅끝해남, 한반도의 시작